

# “양돈장 Y2K 해결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 - 최악의 경우 양돈장 폐업하는 사태도 발생 예상

금융·전력·항공·병원 등 모든 분야 Y2K 문제와 연관

**15**억원이나 투자해서 설치한 모든 400여두 규모의 양돈장이 무창돈사 종합관리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2000년 1월 1일 하루아침에 값비싼 시설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린다면? 그래서 양돈장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면?

가상공간(사이버 세계)에서나 일어남직한 황당한 일들이 실제 내년 1월 1일 양돈장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밝혀졌다. 원인은 Y2K 문제 때문이다.

Y2K 문제는 컴퓨터의 날짜 표기방식이 2자리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뜻한다. 즉 컴퓨터가 4자리 숫자인 1900년과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똑같이 00년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Y2K”에서 “Y”는 연도를 뜻하는 Year의 첫글자이고, “2”는 아라비아 숫자 2, 그리고 “K”는 1,000을 뜻하는 Kilo의 첫머리를 딴 글자로 2000년을 뜻하는 약자이다. Y2K 문제는 일명 “밀리니엄 버그(Millennium Bug)”라고도 하는데, 천 년을 뜻하는 밀리니엄과 컴퓨터의 오류를 뜻하는 버그를 합성한 말이다.

금년들어 국내외의 유수 언론은 거의 매일이 다시피 Y2K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를 국가적인 피해와 재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Y2K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이 마비되어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전력공급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연말에 Y2K 문제에 대한 우려로 현금이 평소보다 20~30%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돈을 찍어낼 공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관제시스템의 작동 오류로 비행기가 날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핵무기가 국방책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사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Y2K 문제는 비단 이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병원, 통신장치, 공장, 주유소, 제약회사, 택시미터, 세무회계 등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생활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 축산분야, Y2K 문제 인식·해결대책 극히 저조

축산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료공장, 동물약품 제조공장, 육가공공장, 양돈장, 양계장, 부화장, 젖소목장 등 모든 장소에서 Y2K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축사에서는 주로 자동온도환기조절장치, 사료자동급이시스템, 착유시스템, 계란자동선별기, 분만관리프로그램, 검정프로그램 등 많은 부분이 Y2K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양축농가들의 대부분은 Y2K 문제를 언론매체를 통해 어슴프레하게 알고는 있으나, 내 농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2000년까지 겨우 8개월 남짓 남겨둔 것을 감안하면 양돈업계의 Y2K 문제해결은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나

**양돈장의 경우엔 주로 자동으로 온도와 환기를 조절하는  
종합제어시스템과 번식돈관리프로그램(소프트웨어), 회계관리프로그램이 Y2K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료자동급이시스템도 Y2K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 등 많은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정부 전산분야, 특히 축산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이에 대한 인식도와 해결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어느 농가가,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 심지어 IMF 여파로 시스템을 수입하여 공급한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한 경우도 있다. 이것이 축산업계의 Y2K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인식) → 제2단계(영향평가) → 제3단계(변환) → 제4단계(검증) → 제5단계(시험운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2000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축산업계의 경우 아직도 제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무창돈사 설치, 컴퓨터 사용 양돈장은 모두 Y2K 점검해야**

양돈장의 경우엔 주로 자동으로 온도와 환기를 조절하는 종합제어시스템과 번식돈관리프로그램(소프트웨어), 회계관리프로그램이 Y2K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료자동급이시스템도 Y2K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온도조절시스템은 주로 무창돈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 많은 전기업양돈

장과 양돈단지 등에서 무창돈사를 지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돈장은 반드시 Y2K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양돈장은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연락해서 Y2K 해당여부를 체크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번식돈관리프로그램과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양돈장들도 Y2K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번식돈관리프로그램은 주로 사료회사와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 취급업체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양돈장에서는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교체한 후 이전 데이터를 바꿔주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양돈장이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난방공급과 환기조절이 제대로 안돼 추운 겨울에 돼지들이 일시에 동사하거나 질식사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1999년 12월 31일 밤에는 관리인이 집에 들어가지 말고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축산업계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협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급업체에 의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부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 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에 민관 합동의 가칭 “축산분야 Y2K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축산농가 Y2K 실태조사 결과 (축기연)

구 분		A 양돈장	B 양계장
사육규모		모든 410두(4,000두 규모)	300,000수
보유 시스템		종합관리제어시스템(환기, 온도, 사료 등), 관리프로그램(PC)	종합관리제어시스템(환기, 온도, 사료, 음수 등), 자동선란시스템, 재고관리프로그램(PC)
자산	가축	3억원	64억원
	시스템	15억원	30억원
	계	18억원	94억원
Y2K 문제 발생 가능성	시간개념	아나로그형 시간 운용, 정밀 진단 필요	두 자리 연도 및 연산기능(RTC), DOS3.0에서 운용
	공급업체 대책	S/W보완약속(공급업체), 제어시스템은 대책 없음	대책 없음
	결론	가능성 다소 있음	가능성 상당히 높음
추가 비용		인건비 20명 추가 소요 (일당 70만원 소요)	인건비 100여명 추가 소요 (일당 250만원 소요)
발생시 직접 피해		18억원	94억원
방치시 최종 시나리오		폐업	폐업

### 최악의 경우 Y2K 문제로 양돈장 폐업 할 수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금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Y2K 문제 발생 사례발굴을 위해 양돈, 양계, 낙농농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조사 농장 대부분이 Y2K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정밀진단과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기연이 조사한 양돈장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소재한 모든 410두 규모의 A양돈장(종돈장)은 지난 95년과 96년에 15억원을 투입해서 자동온도환기제어시스템과 자동사료급이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리고 사료회사의 도움으로 번식돈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조사결과 모두 Y2K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농장은 번식돈 관리프로그램의 경우 사료회사에서 공급한 것이었기에 그 회사에서 Y2K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5억원을 투자한 자동제어시스템은 Y2K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허송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 농장이 지금 이대로 2000년 1월 1일을 맞는다면, 시설비 15억원과 돼지값 3억원 등 총 18억원의 피해를 입고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축기연 조사팀의 분석결과이다. 이처럼 Y2K 문제는 양돈장과 멀리 떨어진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돈장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 축산분야 민관 합동 Y2K 특별대책팀 구성해야

따라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농가는 농가대로 내 농장의 Y2K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겠다. 또한 정부도 농림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책반과는 별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축산분야 Y2K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실태조사와 점검, 홍보, 예산지원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하겠다. 막연하게 Y2K에 대처하라는 지시와 홍보만으로는 결코 축산업계의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김동성) **양돈**